틴탑, 한국 첫 크루즈 선상공연…특별한 경험 스릉하는 틴탑 사진♡

2012. 3. 21. 17:39

복사https://blog.naver.com/wngus66/30134274421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스포츠월드>

남성그룹 틴탑이 대한민국 크루즈 1호 ‘하모니 크루즈’의 첫 출항에서 한류아이돌을 대표해 선상공연을 선보였다.

틴탑은 지난 17일 일본오사카를 출항하여 제주를 걸쳐 인천으로 돌아오는 하모니크루즈의 첫 번째 선상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특별한 콘셉트의 팬미팅에 틴탑 공연을 보기 위해 오사카에서 인천행 크루즈에 참여한 팬들은 틴탑과 함께 진행된 토크타임에서 직접 질문과 대화를 나누다 눈물을 흘리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틴탑의 선상공연은 일본 아사히 TV ‘모닝버드’ 등 일본 매체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크루즈 팬미팅의 주최사는 “크루즈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대부분 높은 연령대이다. 이에 젊은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에서 차세대 한류 스타로 손꼽히고 있는 틴탑을 첫 한류크루즈의 주인공으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틴탑은 “선상공연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통해 팬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팬들을 만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틴탑은 오는 21일 캐나다토론토에서 진행되는 2012 캐네디언 뮤직페스티벌(2012 Canadian Music Festival) 무대에 오르며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북미 지역 등 폭넓은 해외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열~ 보이나 ?

제목에 한국 첫 크루즈 선상공연 그 주인공이 바로 자랑스러운 TEENTOP ><

짱짱!!!!

한국첫크루즈!!!!! 잊지못할 단어일테얏!

[출처] 틴탑, 한국 첫 크루즈 선상공연…특별한 경험|작성자 삐약이와미어캣

클릭비 데뷔 18주년 - 계속되는 무지개빛 이야기

프로파일

AA ・ 2017. 8. 7. 0:00

URL 복사 이웃추가

8월 7일은 클릭비 데뷔일입니다

작년에는 이때 팬미팅을 했었는데 ㅠㅠ

올해는 7시에 있을 언니네 라디오 본방청취해주세요

김상혁씨의 작은 메시지가 있을 예정.. ::소곤소곤::

1999년 8월 7일에 데뷔한 클릭비는

든든한 맏형 우연석

8월 12일에 여의도 선상파티에서 디제잉 예정이고요

강조위 김태형이자 배우 강후

현재 구하라씨랑 웹무비 발자국소리에서 열연중

만능 중심 오종혁

8월 29일부터 락뮤지컬 틱틱붐에 들어갑니다

니지의 영원한 재간둥이 김상혁

SBS 라디오 및 예능에서 맹활약중 (샛강역 육회관, 바오밥 출몰)

소통왕 하현곤

하현곤팩토리로 꾸준히 신규 음원 발매중

1세대 아이돌의 미모탑에 꼭 거론되는 유호석

8월 19일에 Club K에서 공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 노민혁

애쉬그레이는 현재 깜짝 버스킹 릴레이중

이렇게 7명이 클릭비입니다

18주년 축하합니다^^

[출처] 클릭비 데뷔 18주년 - 계속되는 무지개빛 이야기|작성자 AA

부산 중구: 한효주와 함께하는 부산크루즈 출사여행\_첫째 날 내나라 여행기 / 。여행

2009. 11. 23. 0:08

복사https://jardin85.blog.me/130074186562

엮인글 1개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지도로 보기

지난달 생일을 앞두고 좋은 소식이 있었다.

바로 삼성 VLUU에서 주최하는 부산크루즈 출사여행에 당첨된 것!

예상도 못했고, 기대는 아주 조금 했지만 될거란 확신도 없었는데 높은 경쟁률에서 뽑혔다.

올해 생일선물은 잊지 못할거 같다. 그 설레임과 추억들을 이제야 풀어 놓는다.

부산까지는 KTX가 아닌 단체로 버스로 이동했다.

VLUU Style 카페에서는 나까지 포함한 5명.

출사가 처음은 아니지만 멀리 여행겸 이렇게 단체로 가는 출사는 처음이라 기대가 컸다.

한효주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은 둘째치고, 나에겐 여행이 무엇보다 우선 0순위.

무엇보다 크루즈는 한번도 타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 두근두근

웃는 모습이 예쁘신 VLUU 카페 부매니저이신 셔터찬스님.

체험단 오프모임 이후 오랫만에 다시 뵙는다.

3번의 휴게소를 들르면서 쉬엄쉬엄 도착한 부산은 예상과는 달리 따뜻했다.

서울엔 비가 많이 온다던데 부산은 살짝 흐린 날씨만 빼면 좋았다.

크루즈를 탑승하기로 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기에 일단 대기하기로 하고,

터미널 근처에서 바다를 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터미널 근처엔 낚시꾼들이 많았다.

지난 여름에 남해를 다녀온 이후로 낚시에 관심이 많아진 나는 가까이서 보고 있었다.

아직 낚시 장비나 아는건 별로 없지만 왠지 재밌을거 같다.

그들은 이 바다를 보며 무엇을 낚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기다리던 크루즈가 선착장에 들어오고 있다.

팬스타 크루즈.

크루즈란 어떤 곳일까? 궁금궁금.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잡지에서 본 지중해의 크루즈를 상상하고 있었다.)

크루즈에 탑승하기 위해선 티켓이 아닌 본인의 이름이 새겨진 크루즈 패스카드가 발급된다.

가질 수 있을줄 알았는데 나중에 반납해야 했다.

(유독 이런거 모으는 취미 있다.)

비행기 탑승할 때처럼 절차는 비슷하다.

보안검색도 그대로 한다.

대기 중에 풍선아트 해주는 이벤트도 있어서 잠깐이나마 눈요기 한다.

드디어 기다리던 크루즈 탑승!

탑승할 때의 사진은 그냥 패스했다.

전처럼 이동경로를 하나씩 찍어두는걸 좀 간소화 했다랄까?

따뜻했던 날씨가 바닷바람을 쐬면서 점점 추위가 밀려 오고 있었다.

노을지는 바다에 넋을 잃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해가 지면서 추위에 다같이 사진 찍는 것도 접고, 라운지로 내려왔다.

신기하면서 재밌었던 거울.

어느새 옆에서 브이를 그리고 있는 하영언니가 보인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인 일정.

한효주와의 팬미팅이 시작되었다.

미팅장소가 작은 공간이라 가까이 볼 수 있어 좋았다.

드라마 '찬란한 유산' 참 재밌게 봤는데,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예뻤다.

사실 한효주 보다 드라마의 캔디걸 은성이란 캐릭터가 더 끌렸지만…

실제로 그녀 자신도 은성이 몫지 않은 활달한 성격인거 같았다.

짧았던 팬미팅 시간도 끝나고, 저녁식사 후 선상에서 보는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렸다.

동영상으로 담을 생각은 못하고 한참을 사진으로만 담았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건 없다.

오랜 기다림에 비해 불꽃놀이는 5분(?)도 채 안된듯 끝나버렸다.

이렇게 아쉬울 수가!!!

밤바다는 고요하면서도 짙은 어둠이 잔잔하게 깔려서 분위기가 좋았다.

등대섬의 바람, 소백산에서의 바람에 이어…

내 여행의 네번 째 바람이 될거 같다.

그리고

3년만에 다시 보는 반가운 광안대교.

팬스타는 우리들의 팬미팅 일정으로 다시 터미널로 되돌아 왔다. 장장 배에서만 7시간은 있었던듯 하다.

멀미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배 흔들림이 있다.

다양한 이벤트도 많았으나

다른 팀 분위기로 회갑잔치 느낌이 되 버려서 슬펐다.

내가 기대했던 선상 크루즈는 어디로…?(울먹)

크루즈에서 내리니 보슬비가 내린다.

그렇게 기대 반 설레임 반 크루즈여행은 끝이 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갈 시간.

길었던 여행의 하루가 지나간다.

늦은 밤. 일찍 잠드는 것이 아쉬웠던 일행들과 함께

동백섬쪽으로 야간 산책길에 나섰다.

부산의 출사 명소로 꼽히는 마천루가 한눈에 들어온다.

배에서 바라보던 광안대교는 또 다른 빛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다.

찬바람에도 추위에도 이 순간은 잊혀질 만큼

즐거웠다.

함께 해준 이들에게도 참 고마웠다.

고맙습니다.

크루즈 안녕..

프로파일

애기상오 ・ 2019. 2. 12. 15:09

URL 복사 이웃추가

헛된 꿈을 꿨어요...

크루즈 역시 떨어짐...

많이 샀다고 생각했는데... 다들 많이 샀으니까.......

안녕.......

14일 저녁 태민이와 선상에서 보내고 싶었는데...

안녕...

괜찮아..

그래도 토요일에 민호 보니까........근데 팬미팅은 팬미팅이고 크루즈는 크루즈인데 그래도 난 괜찮아 .....안녕...

[출처] 크루즈 안녕..|작성자 애기상오

﻿신승훈, 일본팬들에게 훈훈한 감동 선사

http://minary66.egloos.com/3942729

신승훈, 일본팬들에게 훈훈한 감동 선사

‘발라드 황제’ 신승훈이 일본 팬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다.

신승훈은 12일 서울 한강변 한 선상카페에서 심야 팬미팅을 벌여 일본 팬 200명과 함께 했다. 이 팬들은 신승훈이 앞서 출연한 서울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펼쳐진 브랜드 콘서트 <시월에 눈내리는 마을> 관람차 한국을 찾았다. 신승훈 소속사 도로시뮤직 관계자는 “신승훈의 단독 공연이 아니라 추첨을 통해 200분밖에 모실 수 없었다. 먼 길을 어렵게 오신 팬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소규모지만 팬미팅 자리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신승훈은 공연 중에도 일본 팬들을 배려하는 살뜰한 모습을 보여줬다. 한데 모여 앉은 일본 팬들에게 일본어로 안부를 전하고 관람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는지 살폈다.

무엇보다 2시간 넘는 공연을 마치고 곧바로 팬미팅 장소로 발걸음을 옮겨 일본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줬다. 신승훈은 자정이 다 되도록 피로한 기색을 감추고 일본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승훈 소속사측은 “최근 국내활동 위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일본 팬들과 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자주 이런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승훈은 최근 프로젝트 앨범 <라디오 웨이브>를 발표하고 2년 만에 활동을 시작했다. 타이틀 곡 <라디오를 켜봐요>는 기존 ‘신승훈 표’ 발라드에서 탈피한 모던록 풍의 노래다.

김성한 기자 wing@sportshankook.co.kr

=======================

좋겠어.....우리도 일본공연가면 저렇게 해달란 마랴...--++

작년같은경우...우리는 소수정예로 갔는데 마랴...

넘 한거 아냐...ㅡㅡ+++++

흥..흥.....쳇;;;

부산, 출국(?), 크루즈 승선 우리나라 여행기 / 선물상자 [여행]

2009. 11. 8. 2:39

복사https://blog.naver.com/ujusun623/92813967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진짜 신기했다.

출사 이벤트에 응모하면서도 설마 되겠어 했고,

네이버 메인에 광고 뜨는 거 보고선 안돼! 했다.. (경쟁률이 높아지므로)

출사 친구한테 너도 응모해봐 했다가

야.. 그거 되겠냐.. 소리를 들었고

나도 그게 맞는 말이다 싶었다.

근데 왠지 출사 가는 날을 핸드폰에 저장해놨다..

그리구 당첨자 명단 확인 후에, 음.. 역시나 하고 있다가 전화 한통을 받았다..

못가는 사람이 생겨서,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가 기회가 왔댄다..

어, 이거 휴대폰에 저장해놓길 잘했다..

갑자기 회사일이 바빠지는 바람에, 평일에 야근하고 막 달려서

아침에 못일어나서 못가는 거 아냐?.. 했지만

다행히 난 일어났다...

(엄마 깨워줘서 쌩유... ♡)

그리구 진짜,

2년만에 부산엘 갔다왔다!!!

(일주일이나 지나서 쓰는 후기)

휴게소에서 먹은 점심 도시락..

겨자소스가 허니머스타드가 아니라 정말 겨자였던 생각이 나누나..

금강에도 단풍이...

가을인게지...

삼성 행사다보니, 삼성 블루 카메라가 없는 사람은 사용해볼 기회를 주었다.

12만화소에 풀터치 LCD

신기하다.. (개인적으론 카메라를 돌리면서 자꾸 실수로 액정을 누르긴 했지만...)

셀카를 위한 전면의 미니 LCD로 찍은걸 카메라에서 바로 보정했다.

(얼굴 잡티 없애는데는 역시 모노톤이 최고 ㅋ)

어찌어찌 부산 도착.. 국제 크루즈 터미널 도착

항에는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아저씨, 많이 낚으셨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낚시대와 바다

바닷바람을 쐬니 신나는 사람들..

같이 간 사람들 +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

오.. 드디어 우리가 탈 크루즈가 눈에 들어왔다..

근데, 생각보다 엘레강트하진 않군 ㅋ

너무 타이타닉을 기대했나...

(그 전날 밤에 크루즈에서 시폰원피스가 필요할지 고민 살짝 했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ㅋ)

크루즈 승선을 위해서는 출국 수속을 밟는다

짐도 검사하고, 탐지기도 통과!

승선 후 갑판에서 한두시간정도 촬영..

바닷바람 맞으면서 사진 많이 찍었다.

오랜만의 바닷바람 좋긴 했지만, 좀 추웠다 ㅋ

아, 그리고.. 갑판에 노래를 너무 크게 틀어놔서.. 귀가 좀 아팠던 기억이..

해가 슬슬 기운다..

약간 이맘때.. 요런 색 좋다.

바다 위에 떠있는 보랏빛나는 분홍색 하늘

또 삼성 카메라로 찍은 사진..

일몰 모드로 찍으니까 분위기가 완전 일몰스럽다..

크루즈 내부에 있던 행사장..

수소가 들어간 풍선은 손님들이 하나 둘씩 가져가서

나중엔 저 자리에 안 났았다.

중앙부에 있던 거울

가운데로 2층 복도가 보였다..

저 조명은 살짝.. 관광버스 조명 생각나는군

선상 GS 25... 인상깊었다.

저 창문으로 바다가 보인다.

전망좋은 편의점 탑10에 당당히 랭크될 듯!

아.. 그리고 이건 한효주 팬미팅 이후에 먹었던 저녁식사

저 한 접시 챙겨올라고

난 그렇게 긴 줄을 견뎌냈나보다...................

(다른 단체손님들이 있었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사인이 약간 안맞아서 몰렸었다...)

to be continued...

국적크루즈선사, '출범' 보다 '운영' 이다 Issues / Cruise

2015. 9. 25. 17:53

복사https://blog.naver.com/mainsource/220492015134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 Shippers' Journal, 2015년 9월

​

​- 한류 콘텐츠 활용한 선내 프로그램 운영정책, 실효성 크지 않아

- 관광 상품 기획 차원보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업 운영 마인드로 접근해야

현대 상선과 팬스타가 주축이 된 국적크루즈선사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현대 상선이 크루즈선박 구입에 나섰다’는 뉴스가 외신에 보도되면서 ‘말로만 끝나는 것 아닌가’하는 세간의 의구심을 비교적 빠르게 불식시킨 셈이다.

​

그러나, 선사의 출범과는 별개로 그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몇 차례의 공식석상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적극 차용한 선내 프로그램 운영’ 등의 토론이 개최된 바 있지만, 향후 10년 안에 50척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 중국 크루즈시장에서 한국국적크루즈선사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검증은 아직 불충분하다.

​

지난 2년 간 한류 콘텐츠의 크루즈 선상 이벤트를 기획해온 필자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선내 컨텐츠 운영 및 국적크루즈선사의 성공적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

K-pop 크루즈. 생각보다 쉽지 않다.

현재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케이팝 아티스트의 선내공연을 추진하며, 더 나아가 SM, YG등 거대 엔터테인먼트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형태의 국적크루즈선사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전언이다.

​

케이팝 아티스트의 몸값은 상상을 초월한다. A급 아티스트의 경우 1회 단독 공연에 5억 원 이상, 광고의 경우 20억 원 이상의 개런티 수준이다. 매주마다 새로운 대형 케이팝 스타들이 크루즈선내에서 공연을 한다면 그만큼의 거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제아무리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라고 해도 누군가 그 비용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 해외에서 개최되는 아이돌그룹의 크루즈 팬미팅의 경우 1년에 한번 차터(전세선)으로 운영된다. 경제력 있는 전세계 30-40대 주부팬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에서 최대 400백만 원대의 티켓 2000장 이상이 완판된다는 가정하에 기획 단계부터 준비가 가능하다.

​

그러나 케이팝 아티스트의 팬 연령층은 아직 낮다. 크루즈요금에 행사의 프리미엄을 더한 높은 가격의 크루즈 팬미팅 티켓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구매층은 아직 넓게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다. 확보 되어도 문제다.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는 안전상의 문제와 팬들과의 친밀감 문제로 크루즈 팬미팅에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최근 현대 크루즈가 인천 근해 선상에서 아이돌그룹 ‘샤이니(SHINee)’의 크루즈 팬미팅을 개최한 바 있지만, 몇 시간 동안의 짧은 이벤트였을 뿐 상해와 한국을 오가는 국적크루즈선에서의 이벤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다.

▲‘카니발 크루즈 라인(Carnival Cruise Line)’사가 운영하는 ‘Carnival Live!’ 프로그램

현재 ‘카니발 크루즈 라인(Carnival Cruise Line)’사가 운영하는 ‘Carnival Live!’ 프로그램이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다. 이것은 탑승객이 크루즈 탑승 후 선내 기획 공연에 대한 입장료를 추가 지불하는 방식인데, 선사 측에서 아티스트에게 개런티를 선지급하고 아티스트는 하루에 2회씩, 2박 3일에 4회, 3박 4일에 6회 등의 선상공연을 펼친다.

​

하지만 아티스트는 당장 핫한 톱스타가 아니다. 8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록그룹 ‘하트(Heart)'나 ‘라이오넬 리치(Lionel Richie)’ 등 왕년의 스타들이 섭외된다. 프로그램 자체의 반응은 좋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공연에 대한 추가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고, 선사는 낮은 개런티로 섭외가 가능한 한류 아티스트는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만약 정상급 케이팝 아티스트를 섭외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구동시킨다면, 높은 개런티만큼의 리스크도 높다. 탑승객이 선택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으로는 가족단위의 탑승객이 많을 경우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

신인 케이팝 아티스트의 공연이나 한류드라마를 각색한 뮤지컬, 홀로그램 콘서트 등을 선상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라이센스 문제부터 그 또한 경쟁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

테마 크루즈 VS 콘셉트 크루즈

테마 크루즈란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용도로 전세되는 크루즈선박을 통칭하는 단어로써, 앞서 언급한 팬미팅 크루즈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반면 콘셉트 크루즈는 특정한 주제를 설정하여 크루즈 운영에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디즈니(Disney)’ 크루즈사와 ‘남국/북극 크루즈’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국적크루즈선사의 모습은 한국 전통의 맛과 멋으로 무장한 콘셉트 크루즈다. 한류 및 케이팝 아티스트의 영향으로 한국적인 인테리어와 한국 음식과 공연을 만날 수 있는 크루즈가 중국인들에게 큰 경쟁력이 있을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예측이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

중국인들이 ‘한국 콘셉트 크루즈’에 얼마만큼 큰 관심을 가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비자 제약으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중국인들의 차선책인 측면이 강한 중국발 크루즈관광이 크루즈로 가장 쉽게 기항할 수 있는 한국을 과연 크루즈선내에서 굳이 느끼고 싶어 할 것인가라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할 문제다.

​

중국국적선사 ‘스카이씨(Skysea)’사의 경우 ‘셀러브리티(Celebrity)’사로부터 ‘센츄리(Century)’호를 매입하며 중국식 인테리어와 확충된 카지노 시설 등의 ‘중국 콘셉트 크루즈’로 리모델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국가주의 성향이 강하고, 가족이 함께 크루즈여행을 즐기는 중국인의 특성 상 이러한 스카이씨사의 전략은 중국시장과 상당히 잘 맞다.

▲'골든 에라'호에서 역대 미스 유니버스 차이나를 초대하여 기획한 테마 크루즈의 포스터

그러나 중국을 모항으로 한국 콘셉트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많다. 한류 콘텐츠를 선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라이센스 부분에서의 이해관계가 꽤나 복잡하다. 또한 트랜드에 맞게 매년 업데이트를 한다면 그만큼 추가비용도 높아진다. 한국 전통 문화를 담은 크루즈의 경우 한국 기항지 여행과 충돌할 수 있다.

​

만약 정부가 이번 국적크루즈선사의 출범을 계기로 세계적인 크루즈선사로의 도약까지 꿈꾸고 있다면,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아시아 기업 ‘겐팅(Genting)’ 그룹의 ‘스타 크루즈(Star Cruise)’를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다.

​

그들은 콘텐츠의 국적을 포기하고 크루즈선사 비즈니스 본연의 영업전략 공식을 찬찬히 밟아나아가 세계 4대 크루즈선사의 반열에 올랐다. 또한 아시아 선사임에도, 전세계 각 곳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여 홍보와 판매에 다각적인 전략을 펼쳐왔다. NCL(Norweigian Cruise Line)과 같은 기존의 대형 크루즈선사의 지분을 사들이며 몸집도 키워왔다. 국적크루즈선사의 운영을 자국의 관광 상품 차원이 아닌 글로벌 비즈니스의 수익모델로 키워온 것이 그 성공의 열쇠였던 것이다.

▲‘스타 크루즈’ 사의 7만 5천 톤급 ‘버고’호와 선내 시설 전경

우리에게는 아직도 3년 전 한국 최초의 국적크루즈선사 ‘클럽 하모니’의 ‘1년 만에 사업 철회’라는 뼈아픈 기억이 남아있다. 정부와 사업주체자 모두 이 사업에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간의 실패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충분한 시장조사와 철저한 준비작업이 선행되기를 소망한다.

​

‘해양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크루즈산업은 로맨틱하고 럭셔리한 겉모습과는 달리 글로벌 비즈니스의 첨예한 경쟁으로 점철되는 또 다른 전쟁터와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

​

# 본문 출처 : http://mediakn.com/news/article.html?no=2914

​

[출처] 국적크루즈선사, '출범' 보다 '운영' 이다|작성자 Henry

D-3 마성의 보이스 황치열, "치열 UP!" 27일 단독콘서트 평화의전당 황치열비상하다 / Life Story

2016. 11. 24. 20:11

복사https://blog.naver.com/yoon2454/220869944417

번역하기

전용뷰어 보기

161124 D-3 마성의 보이스 황치열, "치열 UP!" 27일 단독콘서트 평화의전당

D-3 마성의 보이스 황치열, "치열 UP!" - 버건디 코트는 가을남자의 와인향미가 가득 혀끝을 맴도는 향을 음미하게 하는남자

[FANCAM] 161116 황치열 黄致列 ASIA ARTIST AWARDS HONEY - 유투브 lovelyarin

"여심 저격 미소" 황치열, 점점 더 어려지는 훈훈 외모

"여심 저격 미소" 황치열, 점점 더 어려지는 훈훈 외모

[스포츠서울 신혜연기자] 가수 황치열이 미소로 여심을 저격했다.황치열은 24일 자신의 웨이...

www.sportsseoul.com

황치열, 팬들에 근황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황치열, 팬들에 근황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수 황치열이 팬들에 대한 마음을 남겼다. 황치열은 24일 자신의 웨이보에 즐거운 추수감사절,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감사하고, 여...

star.mbn.co.kr

11/7/2016 (한글자막) 대만 팬미팅 관련 보도영상 두개 함께 올려요 \_ 황치열 黄致列 - 유투브 김혜정님

​

D-3 마성의 보이스 황치열, "치열 UP!" - 핑크열도 러블리 ~ 러블리하고..... 하나뿐인 내가수 황치열, 콩깍지여 영원하라 ~

팬마음 전광판 광고 사진 응모작들 이랍니다. 내맘에 쏘옥 듭니다.

[연예가 핫뉴스] 황치열 데뷔 첫 단독 팬미팅 내달 27일 4500석 대규모 - 부산일보

가수 황치열이 데뷔 이후 처음으로 단독 팬미팅을 개최한다.<br /><br />황치열은 내달 27일 서울 경

news20.busan.com

[연예가 핫뉴스] 황치열 데뷔 첫 단독 팬미팅 내달 27일 4500석 대규모

공연내용 - ‘황치열의 첫 단독팬미팅 “치열UP!”

황치열! 대륙이 사랑한 남자!

<불후의명곡>, 중국판 <나는가수다 시즌4> 와 함께 황치열의 무대가 시작 되었다.

거친 중저음 보이스로 감성을 울리고 반전 매력 심쿵 미소에 재미있는 입담까지

노래, 춤, 예능 모든걸 갖춘 이 남자의 첫 번째 팬미팅 “치열UP!”

중국에서 최고의 무대만을 보여주었던 그가 국내 대규모 첫 팬미팅으로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황치열의 매력적인 무대.

<황치열의 첫 단독팬미팅 치열UP>

팬들과의 약속…….기다렸던 여러분과 그날의 무대를 함께 Cheer up!

11/25일 황치열, 코엑스 pm3시 SIEROCOSMETIC (시에로코스메틱)

​

11/26일 황치열, 정글의법칙 241회 in동티모르 방송​

11/27일 황치열, 국내 첫 단독팬미팅 ‘치열UP’ 11월 27일 개최 [공식]

12/6일 제주공연 (상해에서 서울 인천 제주 경유해서 상해로 가는 쿠르즈여행)

12/22일 제주도 공연 (중국상해, 항조우, 텐진, 하얼빈 등에서 12/21출발 12/24일 귀국하는 투어여행)

2017년 1/21일 PM 8.30분 황치열 말레이시아 단독콘서트 (겐팅하일랜드 겐팅아레나 5000석규모)

​

11/25일 황치열, 코엑스 pm3시 SIEROCOSMETIC (시에로코스메틱)

​

​

상해에서 서울 인천 제주 경유해서 상해로 가는 쿠르즈인가봐요~^^

예전 포스팅에 크루즈 공연 상상했었는데 꿈이 현실로~~

오호!! 생각하고 꿈꾸고 말만하면 다 이루어지네요. 그만큼 열씸히 달려준 가수님 최고예요~♡

선상공연 얼마나 또 근사할까요? 그 곳에 함께 할 수 없다는게 너무 아쉽지만 가수님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는것

같아 흐뭇합니당 - 치열스 캐나다손님 번역 -

[출처] 12월 6일(화) 선상 공연 (치열스 황치열팬카페(Hwang Chiyeul Fan Cafe)) |작성자 홈닥터

꺄악 ~ 나의 버킷 리스트(bucket list)​에 있는 클루즈 선상여행 ,

거기다 황치열 공연까지라면 최고 !! 갑어브갑!! 인디 ~~~

중국 상해, 항조우, 텐진, 하얼빈 등의 도시에서 12/21 출발 12/24일 귀국하는 중국 관광객 여행 상품으로만 판매되는 투어 상품 일부로 콘서트가 진행 된다 하구요. 일단은 콘서트 따로 입장권 구매는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이 상품이 다 안팔리면 여분의 표가 따로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좋은 자리가 확보되는 A 상품의 가격이 콘서트와

3박 4일 일정 투어 포함 5800 위안 이라 합니다 .한국돈으로 99만원 정도이다 . -번역- 치열스 토토로짱님

[출처] 12월 22일(목) 행사 (치열스 황치열팬카페(Hwang Chiyeul Fan Cafe)) |작성자 홈닥터

2017년 1/21일 PM 8.30분 황치열 말레이시아 단독콘서트 (겐팅하일랜드 겐팅아레나 5000석규모)

11/25일 황치열, 정글의법칙 241회 in동티모르 방송​, 본방 사수 합니다.

​9/17일출국 ~ 26일까지 동티모르 촬영 경험자시니 후발대하고도 합류해서 촬영하신듯 합니다. 그렇게 또 인맥을........

​

황치열부터 강남까지…'정글의 의리' 6人 뭉쳤다.

황치열부터 강남까지…´정글의 의리´ 6人 뭉쳤다

정글 동료들의 유쾌한 모습이 포착됐다.강남이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동료들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사진 속에는 장난기 넘치는 강남부터 환...

isplus.live.joins.com

​중국 열화들 황쯔리에 사랑이 대단합니다. 금한령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아빠어디가《爸爸去哪儿4》황빠빠와 이항이 그동안의 기록 \_ 황치열 黄致列 - 유투브 김혜정님

11/18/2016 (한글자막) 아빠어디가《爸爸去哪儿4》 마지막 난창탄촌편 황치열 편집본 \_ 黄致列

황치열\_칠렐레 팔렐레 3분할 화면 합동편집ㅋㅋ~귀여워~ 유투브 전경아님

치열스 황치열팬카페(Hwang Chi... : 네이버 카페

라이브황태자,최강보컬 황치열을 응원하는 사람들 황치열팬카페 치열스, Hwang chiyeul Fan cafe ,Chiyeol

cafe.naver.com